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저 건너 숲에서 들려오는 아침의 소리는 파이프로르 간 반주에 맞춰 울려 퍼지는 합창 소리 같다.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지난 가을엔 안개 자욱한 풍경을 보고, 초봄엔 매화나무 가지에 꽃눈이 맺힌 걸 눈여겨보았다. 오늘 아침엔 숲 아래로 종 치는 걸 잇는 교회 침탑이 보이는데, 숲 위로 회색 구름 몇 장이 걸려 있을 뿐이다. 식탁에는 막 구운 빵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방금 씻어 껍질째 사등분한 사과 한 알, 그리고 조간신문. 나는 아침마다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조간신문을 펼친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가를 말해 다오. 그러면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말하겠노라.

프랑스의 한 에세이스트는 "이것은 모순적인 사치다"라고 말했다. 무엇이 모순적 사치란 말인가? 바로 아침 식탁에서 조간신문 읽는 일이다. 부지런한 신문 배달원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신문이 현관 앞에 떨어지는 소리가 고막을 두드린다. 새벽의 이 경쾌한 소리가 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아침 식탁 위에 펼쳐 놓은 조간신문엔 나라 안 흥아 범죤나 먼 나라의 지진·홍수 피해, 피로 얼룩진 내전과 테러 소식이 난무한다.

조간신문을 읽는 즐거움

세상의 죄악과 음습한 소식으로 소란스러운 조간신문은 아침 식탁의 고요함과 극단적으로 부조화를 이룬다. 우리는 종종 이 부조화의 간극에서 기묘한 느낌에 빠진다.

나는 중학교 입학 무렵부터 조간신문을 읽었다. 그 시절엔 신문을 구독하는 집들이 많았다. 마당에 떨어진 조간신문을 주워 들고 와 읽는 기쁨은 각별했다. 조간신문에서 연재소설을 읽고, 1968년 달 탐사선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소식을 접했다.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첫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이 남긴 '한 인간에게 작은 발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란 말은 내 심장을 얼마나 빨리 뛰게 했던가!

나는 조간신문을 통해 세상 견문을 넓혔다. 지금 읽는 한자도 조간신문을 읽으며 익힌 것이다. 그 무렵 한 지방신문에서 종교교 학생 대상 '3·1문제상' 공모 단신을 찾아내고 시와 산문을 써서 보낸 적이 있다. 얼마 뒤 놀랍게도 두 부문에서 장원을 차지했다는 소식을 전보로 받았다. 나는 D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순 은메달을 두 개나 목에 거는 기쁨을 누렸다.

아침 식탁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고요와 평화를 유지한다. 이 정금 같은 고요와 가장 완벽한 평화 속에서 읽는 조간신문이란 무엇인가? 조간신문은 일기 예보, 노동자 파업, 주가 변동, 나라 밖 지진이나 화산 폭발 소식을 전하며 하루의 세계를 축약한다. 조간신문은 세계의 변화와 그 징후를 전달한다. 그런 점에서 조간신문은 새로운 세상의 발명자, 희망의 선포자, 우리가 잠든 밤의 야경꾼이다. 안타까운 것은 조간신문

에서 전대미문의 시와 수천억 은하의 흐름들, 증평의 자매가 꾸리는 수예점과 인제의 자작나무 숲, 제주 오름이나 사려니 숲과 내설악 다람쥐의 안부, 착한 소년의 취향에 대한 소식을 찾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오늘의 세계를 구석구석 살피고 아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는 비동일화의 시간이 스미고 섞이며 만드는 세계가 복잡할 따름이다. 어제 그제 더 옛날의 것들은 순차적으로 '역사'라는 화석으로 변하지만, 우리가 온몸으로 감당하는 오늘은 수많은 내일들의 어머니다. 오늘을 알고, 그 앞을 바탕으로 내일을 예측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래도 조간신문이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 조간신문은 혼동과 판단 정지와 흐름들을 거슬러 오늘이라는 기적이 홀연히 나타남을 보여 준다.

안타깝게도 종이신문의 시대가 가고 있다고 한다. 종이신문은 '느린 매체'로 속보 경쟁에서 디지털 매체를 이길 수가 없다. 많은 이들이 조간신문 대신에 인터넷에 접속해 세상과 만나는 게 오늘의 흐름이다. 하지만 나는 아침 식탁에서 조간신문을 펼쳐 놓고 읽는 세상에 살고 싶다. 독수리처럼 높이 떠서 멀리 보고, 그늘진 곳을 두루 살피며, 약하고 어린 것에겐 관대하고, 힘세고 뻣뻣한 것에겐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놀리고 멍든 것을 보듬고 위로하는 조간신문이 나오는 세상을 나는 여전히 꿈꾼다. 우리가 아침 식탁에서 맞는 조출한 안경을 맛있는 빵처럼 떼어 먹으며 누리는 조간신문을 읽는 즐거움과 보람이 없다면 삶은 얼마나 더 삭막해질 것인가.

종교칼럼

혼군(昏君)



황성호
신부
광주기독교 사회복지회 부국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스리다'의 의미는 누군가를 지배하여 절대적인 권력으로 남을 압도하려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다스리다'의 의미에는 잘 보살핀다는 뜻도 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는 말씀이 있다. 예전 번역에서는 이 '돌보다'를 '다스리다'로 번역하였는데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야 하기 때문에 '다스리다'에서 '돌보다'는 단어로 바뀌게 된 것이다. 결국 어떤 지도자의 '다스리다'의 의미는 돌보고 지키며 봉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며, 덕이 뛰어나고어진 임금을 뜻하는 성군(聖君)이라고 할 수 있을까?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이어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나라를 잘 다스릴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다는 것이 참 다행이다. 그런데 누가 혼군(昏君)이 아닌 성군(聖君)으로서 우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잘 선택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다 알지만, 우리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고스란히 나에게 있다. 우리 지역의 지도자들을 뽑는 지방선거도 이와 같다고 본다.

그래서 혼군과 성군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 어떤 지도자가 우리를 돌보아 주고 지켜 주며 봉사하려고 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달콤한 말 한마디에 현혹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어떤 정치적 이념과 사상으로 지도자를 뽑을 일이 아니다. 우리를 어떻게 돌보고, 어떤 것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며,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실현하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혼군(昏君)에 대한 이야기는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드러나는 모습들이기도 하다. 마테오복음 11장 17절에 "우리가 피리를 불어 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다. 그 시대에 냉대받고 외면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한 이들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예수의 말씀이다. 끝없는 탐욕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교만함에 어떤 반성도 없을 뿐더러, 완고함으로 가득하여 피도 눈물도 없는 냉대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돌보고 지키며 봉사하는 것이 성군(聖君)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가족은 물론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에게 우리는 서로 돌보고 지켜주며 봉사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 혼군(昏君)이 아닌 성군(聖君)의 덕목을 실천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한 이들을 만날 때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나라에 이주 노동자로 온 이들이 차별받으며 인권을 무시당했을 때마다, 같은 말을 사용하면서도 선입견과 냉대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힘겨워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어려움을 접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군(昏君)이 아닌 성군(聖君)의 삶이다. 돌보고 지켜 주며 봉사하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社說

절차 생략 문화전당재단 인사 꿈수 아니었나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임원 인사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들을 선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문화전당재단 이사장에 최영준 전 광주문화방송 사장을, 사장에 김선옥(사) 문화예술협회 이사장을 선임했다. 하지만 문화부가 규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원을 선임했다는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사회 소집 없이 신입 이사장과 신입 사장을 임명한 것이다. 지난 10일 제정된 문화전당재단 정관 '제3장 이사회' 조항에는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가 심의·의결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사회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문화전당재단 이사들조차 선임 경연에 대한 정보는 물론 누가 이사로 선임됐는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실제 K 이사는 "재단은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장이나 대표를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측 해명도 석연치 않다. "문화전

당재단은 아특별 개정에 따른 신설 법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관을 먼저 승인 받고 이후에 임명을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정관을 무시했다는 것을 자인한 셈이다.

이번 인사 파문을 임원을 추천하고 검증하는 이사회를 건너뛰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데서 비롯됐다 할 수 없다. 전문성과 식견을 의심받는 인사들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상화 시민연대 등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인사 철회를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화전당재단은 문화전당 활성화의 한 축이므로 이에 걸맞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가 이번 '영터리 인선'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중국에는 문화전당이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국가기관인 문화표현 심의위원회에 위임해서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게 하고, 절차까지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본부 조속히 설치해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당장 가장 큰 위험 요인인 140미터의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국내에서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고난도 작업이 요구된다. 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오늘까지 타워크레인 해체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상층부 수색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에 앞서 또 다른 위험 요인인 건물 손상 부위 외부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태로 수습에 한계가 있다며 최고 수준의 구조 전문가와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정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공식 요청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정부

역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소관 부처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가운데 어디로 할 것인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한다면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사고 수습은 물론 시공사인 현대건설개발에 책임을 묻는 관리감독 차원까지 생 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별재난 건물 손상 부위 외부에 대한 안정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어제 현장을 둘러본 실종자 가족들은 수색과 구조가 최장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수습 기간이 길어지면 실종자 가족은 물론 인근 상인들의 고통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만으로는 수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이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최근 언론 매체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단어는 '현산'이다. 최근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신축공사장 아파트 붕괴 사고 때문이다. 6명이 실종되고 이중 1명만 숨진 채 발견된 이 사고 이후 전국의 모든 매체들은 사고 소식과 부실시공 및 수사 상황 등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현산'으로 줄여 쓰고 있는 것이다.

한데 이 줄임말 '현산'으로 인해 불용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 붕괴 사고 첫 기사가 나온 뒤 바로 다음날인 13일 오후 취재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왜 자주 '현산'이라고 쓰는지요.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아무 관련도 없는 해남 '현산면'을요. 제발 현대산업개발이라고 써주세요. 마을 주민들이 난리예요." 전화가 너머로 여러 명의 격앙된 목소리가 함께 들려왔다. 해남군 현산면 황산마을 이장이라고 밝힌 50대 남성은 이로 인해 현산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장과의 통화 이후 열린 제작 회의에서 우리는 향후 기사 작성과 편집 시 '현

산'이라는 단어 대신 현대산업개발로 온전히 표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는 조금 다르지만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와 지명(地名)이 겹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들고 나선 경우로 '강진'과 '삼천포' 등을 들 수 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 등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언론은 '강진 피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수년 전 일기인 하지만 당시 강진군 주민들은 언론사에 '강진'이라는 말 대신 강한 지진이나 대규모 지진 등의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다.

'현산' 유감

한때 흔히 쓰였던 '잘 나갔다 삼천포로 빠졌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이는 이야기가 같길로 흐르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엉뚱하게 그르친 경우를 뜻한다. 당연히 '삼천포' 지역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생각한 그곳 주민들은 언론 등을 상대로 수년간 시정을 요구했고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말이 됐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지금 해남군 현산면 주민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부실시공으로 슬한 목숨을 앗아간 기업의 이름과 고향의 지명이 겹친다면 좋아할 이 누가 있겠는가. /채희송 사회부장 chae@

기 고

대한민국의 2022년 지도자 선택은



한광용
전남대 생체의료시험연구센터 팀장

다. 이런 잘못을 사전에 막아 내기 위하여 우리는 지고 지순한 내 안의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참 좋은 소리를 내는 정치가를 선택하여 스스로 진실을 지켰으면 한다.

음악에는 조율이라는 것이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에 앞서 기존 음을 들려주면 전 단원들은 각자 본인이 연주하려는 악기의 음을 들려주는 음과 똑같이 고른다. 바로 조율이다. 조율되지 않는 악기가 하나라도 있으면 연주는 망칠 것이다. 기존 음에 벗어난 악기의 소리는 전체의 하모니를 깨뜨린다.

또한 기존 음에 본인의 악기 음을 맞추었다 할지라도 공명되지 않으면 울리는 소리가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결국 지휘자나 작곡가가 바라는 연주를 할 수가 없어 청중에게 감동을 선사하지 못한다.

좋은 목소리는 있다. 바로 공명된 소리다. 물방울처럼 동글동글하고 맑고 고운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참 목소리가 좋다고 한다. 악기도 좋은 소리를 내는 악기가 있는데 바로 공명이 잘되는 악기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나 과르네리 바이올린의 소리는 심금을 울리게 한다. 인간이 듣기에 가장 적합한 공명의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두 대의 유명한 바이올린을 갖고 실험했다. 하나의 바이올린을 활로 쳤을 때 활로 쳐지 않는 옆의 바이올린도 함께 울리는 공명음이 발생하였다. 덩달아 울리는 현상은 두 악기가 공명이 잘 되어서 그렇다.

정치도 이와 같다. 공약정책을 내놓아도 기본 정책,

진실이 담긴 정책이 잘못 되었다면 그 공약·정책은 하모니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나 버릴 것이다. 신문·방송과 SNS에서는 한창 정치가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나의 소리가 참 좋은 소리라고 매일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참 좋은 소리를 가려낼 수 있다.

먼저 내 소리를 들어보자. 가정과 사회, 국가에 대한 내 소리의 기준부터 바르게 잡아야 한다. 그리고 나의 소리가 정치가의 소리와 함께 공명이 되는지, 또는 조율이 되어 하모니를 이루는지 분별하여 선택하는 일이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치가의 소리가 나와 어울리지 못하고 메마른 소리, 큰 소리로만 들린다면 그 소리는 잡음이고 소음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그 정치가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합창과 같다. 국민을 위한 정치 공명, 정치 조율을 잘 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여 지휘하게 해야 한다. 각기 다른 공명의 소리를 한 곳으로 합쳐 조화로온 하모니를 이루어 낼 때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능력을 지닌 지휘자, 지도자를 선택해야 한다.

귀가 들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고,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다듬을 줄 아는 이 시대의 진정한 지도자를 뽑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바로 공명되고 조율된 나의 소리,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내 안의 소리에서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를 제대로 찾아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거기에 달려 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